

## 불법도청 관련 기자간담회

노무현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불법도청 문제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“문제의 본질이 대단히 왜곡되고 있고 좀 혼란스럽게 꼬여있어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로 잡고 꼬인 부분을 조금 가닥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” 면서 △정치적 음모론 △수사주체 △도청내용 공개 △불법도청의 역사적 뿌리 △국정원 개편 주장 등에 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. 다음은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다.

### 1.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

□ “아무리 대통령이라도 터져 나온 진실을 묻을 수는 없다”

- 아무런 의도가 없습니다. 아무런 음모도 없습니다.
- 이 사실이 노출된 것은 내가 파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터져 나왔습니다. 이 사건은 그냥 터져 나온 사건이지 우리 정부가 파헤친 사건이 아닙니다.
- 특히 대통령이 파헤친 사건은 더더욱 아닙니다. 터져 나온 진실에 직면

했을 뿐입니다. 도청의 일부가 나왔으니까 도청 전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모에 대해서 정부가 성의를 다해 진실을 밝혀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

- 중요한 것은 저는 대통령이지만 진실을, 터져 나온 진실을 덮어버릴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앞에 부닥친 진실을 제가 비켜갈 수도 없습니다. 적어도 내가 부닥친 이상 최선을 다해서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. 그것밖에 없습니다.

- 누가 이것을 물을 수 있습니까? 왜 여기다 대놓고 자꾸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다,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합니까? 나는 그렇게 유능하지 않습니다. 나는 정치적 공작에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.

#### □ “ ‘은폐→수사’ 악순환 어디션가 끊어야 ”

- 지금 내가 무슨 사실을 덮어버린다고 하면 나는 또 그렇다 치더라도 나를 위해서 일한 참모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불러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? 이 악순환을 어디션가 끊어야 됩니다.

- 왜 김승규 국정원장이 다음 정권에서 또 사실을 은폐했던 사람으로 계속해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검찰에 불러 다녀야 합니까? 나는 김승규 원장이 다시는 검찰에 불러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

#### □ 옛날 정치방식 답습하지 않는다

-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것은 과거 정치에서 우리가 형성한 인식의 틀입니다. ‘옛날에는 그렇게 정치를 하더라’ 하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많

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

- 그러나 나는 그렇게 정치 안 했습니다. 정말 그렇게 정치 안 했습니다. 옛날 정치방식을 나는 답습하지 않았습니다.

- 진실에 맞게 정면으로 상황을 돌파해 가는 것,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버리는 것 나는 그 두개 이상 어떤 수단도 갖고 있지 않고 또 써본 일도 없습니다.

- 내가 지금까지 정치의 어려운 고비에서 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진실이고 진실대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 자신을 던졌기 때문입니다. 그 외 다른 내가 썼던 술수가 있으면 여러분 얘기해 보십시오.

- 왜 무슨 음모설, 무슨 의도설을 말하고 또 받아쓰고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것 포퓰리즘 아닙니까? 선동정치 아닙니까? 이렇게 해서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있는 대로 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왜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붙입니까?

#### □ 연정 발언은 6월초...도청사건 터지기 훨씬 전

(연정과 도청사건 공개를 연결시키는 주장에 대해)

- 내가 연정 얘기를 한 것은 6월 초입니다. 6월 9일 미국방문하기 사흘 전에 첫 번째 글을 탈고했습니다. 그 글은 지금 아마 내 컴퓨터 휴지통 안에 들어있을 것 같은데, 6월 7일로 아마 탈고를 했고. 그 뒤에 글을 다시 써서 몇몇 당원들에게 돌렸고, 오래된 얘기입니다. 도청 얘기가 터져 나온 것은 그 뒤에 훨씬 뒤에 그냥 터져 나온 일입니다.

- 순서는 그런 것 아닙니까? 김영삼 대통령 시절 미림팀의 도청사건이 터져 나왔다,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들은 또는 언론은 이것 말고 도청 없었는 가라는 질문을 바로 던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우리 스스로도 참여정부에는 정말 도청 안 하나, 이 의문을 다시 제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

- 그래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다 밝혀라,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. 미림팀 철저히 조사해서 밝히고 그 이후에도 혹시 무슨 잘못이 없는지 확실하게 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이번에 다 털고 가자...

- 그 얼마 뒤에 비서실장이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고했습니다. 이것 어떻게 해야겠습니까? 덮으라고 하십시오 그럴까요? 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? 내가 그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? 그것 참 곤란한데요, 덮어버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

□ “유블리 떠나 확인된 불법행위 덮을 수는 없어”

- 참여정부,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곤란한 일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. 책임 있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아마 실무선에서 그것 다 밝히면 곤란한 사람이 없지 않을 텐데요...

- 누구 곤란한 사람 있고 없고 간에 지금 내가 덮어라 했다가 뒤에 덮어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날 누가 나를 지켜 줄 것입니까? 내가 지금 덮어라 하면 그 덮어라 하는 명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.

-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, 또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고, 국정원장이 그 다음

누구에게 지시해서 덮으라고 줄줄이 지시를 하게 될 텐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 명이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?

-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. 내 자신의 정치자금 문제에 관해서 잘 보셨지 않습니까? 아무 관계도 없는 친구, 친구의 처제 집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혹한 수색을 다 당해도 한마디 방어를 안했습니다.

#### □ “불법행위는 깊이 묻을수록 폭발력 커져”

- 내가 대통령되고 난 뒤에 너무 대통령이 무르다고 말이 많다, 국정원 좀 써야 되는 것 아니냐,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건의했지만 나는 단 한마디도 국정원더러 정치에 관한 정보 모아오라고 한 일이 없고, 국정원이 누구누구 뒷조사 해 가지고 겁 좀 주라고 단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.

- 내가 위대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오늘날 국정원 직원들의 입에 의해서 이 사건이 이렇게 터져 나오고 파장이 생기듯이 불법한 일은 반드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.

- 제 신앙은 불법은 묻어놓으면 묻힌 깊이만큼 폭발력이 더 크게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. 다이ना마이트로 암석을 폭파할 때 아주 깊이 묻습니다. 장약을 깊이 묻는데, 깊이 묻으면 폭발력이 크기 때문입니다. 나는 불법한 비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. 깊이 묻을수록 크게 터져 나옵니다.

#### □ “정치적 의혹 제기는 나에 대한 모욕”

- 이런 저런 이유로 의혹을 가질만하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의혹이라는 것은 갖다 붙이면 얼마든지 언제 어느 때든 의혹은 제기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.

- 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놓고 저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.

- 저는 정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.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정치해 온 전 과정을 한번 돌이켜서 전부 점검을 해 보십시오. 한 정치인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전부 분석해 보면 아는 것입니다. 그 사람의 인격을 분석해 보라는 얘기입니다.

- 감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.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.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할 사람이라는 어떤 과거의 근거도 남긴 일이 없습니다. 모든 것을 투명하게 모든 것을 정면으로 정정당당하게 처리해 왔습니다. 절대로 그렇게 의심 갖지 마십시오. 옛날 정치하던 사람들 보고 그 잔상을 저에게 자꾸 오버랩하는 그런 일은 좀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

## 2. 수사주체에 대해

### □ 국정원과 검찰이 성역없이 조사

- 참여정부 들어서는 도청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까요? 지금 자체 조사 하고 있습니다. 전에 없던 일이고 또 자체조사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의미를 가집니다. 스스로 조사한다는 것은 최대한 진실을 고백하고 용서받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?. 그래서 자체조사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켜 봅시다.

-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. 동시에 병행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검찰 조사를 하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

니까? 그 결과를 보고 참여정부에서 도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렇게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?

**□ 검찰수사부터 보고 의혹이 있을 때 다른 방법 찾아야**

- 그 다음에 검찰 조사를 한번 보고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혹이 있다, 믿기 어려운 그런 징표들이 좀 있다 할 때 그때는 뭐 특검을 하든지 국정 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

- 그런데 처음부터 검찰 못 믿겠다, 덮어버리고 바로 가자 이런 것은 사실 조사에 있어서 이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저는 별로 동의하기 어렵습니다.

-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어떤 사유도 없이 무력화 시켜 버리는 발상, 그것이 지금 당장은 우리 국민들 기분에 영합될지 모르지만 장래에 있어서 그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겠습니까?

- 야당이 의혹만 제기하면 국가기관은 기능 정지시켜 놓고 다른 기관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? 우리 검찰이 믿기 어려운 일도 많이 과거에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사건 도청수사 그것 하나마저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믿기 어려운 조직이나, 우리 검찰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서 그 제도를 놓고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면 국가가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?

- 나는 그래서 국가가 만든 제도는 정략적으로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대로 써야 한다, 그리고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 때 그때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면 될 문제 아니겠나 생각합니다.

**□ 무조건 특검하자는 주장은 정부조직 무력화시키는 것**

- 특검, 특검 하는데 그렇습니다. 도청 자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검찰이 무슨 제척 사유가 있느냐, 대한민국 검찰조직이, 1600명 검찰조직이 이 도청사건 하나 조사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조직이냐, 나는 그 점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.

- 나는 대통령입니다. 정부조직을 그렇게 함부로 무력화시키는 데 대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. 제도를 그렇게 무력화하는데 동의할 수 없습니다.

#### □ 우선 검찰 수사가 원칙,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

- 검찰이 수사를 못할 이유가 있어야 특검을 할 것 아닙니까? 원칙적으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검하는 것 아닙니까?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, 그래서 내가 유전사건, 행담도 사건 눈물을 머금고, 아야 소리하지 않고 자진해서 특검 받겠다 했지 않습니까?

- 검찰이 연루된 사건 있으면 그 사건, 사건이 한 수십 건 될 텐데 수십 건 중에서 검찰이 연루된 사건은 그것은 특검하자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검찰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, 대통령도 연루돼 있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왜 검찰을 접어놓고 특검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을 어떻게 조성했길래 국민의 60% 이상이 특검해야 된다고 답을 하는 상황이 됐냐는 것입니다.

- 이렇게 상황을 오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?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부닥쳐나가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면피하려고만 자꾸 하니까 엉뚱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.



#### □ 테이프 내용 특검, 무슨 사건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

- 그 다음에 테이프 내용에 관한 조사입니다. 일부 나와 있는 테이프도 있고 묻혀있는 내용도 있는데, 사건이 몇 건입니까?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이 몇 건인 줄 아십니까?

- 소위 말해서 수사착수단계에서 사건의 동일성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특정돼 있습니까? 사건이 몇 건인지도 모르고, 어떤 사건인지도 모르고 사건의 동일성에 대한 특정도 없이 그리고 도청사건인지 도청내용인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마구잡이 특검하자고 그렇게만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. 특검대상이 아직 특정돼 있지 않습니다.

#### □ 특검사유, 언론서 냉정하게 따져봐야

- 특검의 사유를 다시 한번 냉정하게 언론에서 한번 좀 따져주면 좋겠습니다. 어떤 때 특검을 해야 되는지 사회적 공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? 야당이 그냥 의심스럽다 하면 그냥 특검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어느 정도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을 때 특검해야 됩니다.

- 그 사회적 함의를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혼란스럽게 사건만 나오면, 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만 있으면 전부 특검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서 나라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?

#### □ 도청 테이프 내용, 수사할 사안은 수사할 것

- 그 다음에 도청테이프 안에 담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좀 복잡합니다.

- 거기에는 범죄사실도 있고, 범죄사실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일도 있고, 보호해야 할 사생활도 있고 그런 게 뒤엉켜 있다고 생각합니다.

- 또 범죄사실이라 하더라도 시효가 지난 것도 있고 지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.

- 그래서 그 안에는 △처벌을 위한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 △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 △그 다음에 사생활 보호의 대상으로서 묻어 뉘야 되는 것 이런 것이 엉켜있을 것입니다.

- 수사할 것은 다 수사할 것이라고 봅니다. 누가 수사 안 한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? 순서의 선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?

- 저는 그 문제는 법무부와 검찰을 믿고 있습니다.

### 3. 도청 내용, 공개할 것인가?

#### 국회에서 특별법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

- 수사할 것은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. 문제는 수사와 별개로 공개의 문제입니다. 공개의 문제와 수사의 문제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

- 테이프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하고 어디까지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는 수사의 문제와는 전혀 다릅니다.

- 수사대상이 되는 사실과 되지 않는 사실을 모두 포괄해서, 공개해야 될 것과 공개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. 누가 결정합니까?

- 이것은 법에 따라야 합니다.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.

- 우리 국민들 70%가 지금 공개하라고 하지만 70%가 아니라 100%가 공개하라 한다하더라도, 공개하는 사람 스스로 위법을 감행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

- 누가 처벌받을 일을 하겠습니까? 처벌을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대통령도 공개를 명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

- 이것은 도청을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하고는 법리가 다릅니다. 일반 명예훼손에서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은 도청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위법성조각사유라는 것을 법의 근거도 없이 해석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.

- 그러나 어떻든 국민들 70%가 공개하라고 그러고 이 안에는 소위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구조적 비리문제가 들어있는 것 같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결국 국회에서 법 안 만들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.

#### □ 특검과 특별법은 전혀 별개의 문제

- 내용의 공개여부, 보존 여부 등은 특검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.

- 특검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. 특검이나 특별법이나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은 별개문제라는 것입니다.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하면 특검 안 해

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. 특검하면 특별법 안 해도 되는 문제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.

- 특별법은 특검을 하든 안하든 필요합니다. 공개여부와 자료의 관리에 대한 것을 특별법으로 정해야 됩니다. 공개할 것이냐 공개하지 않을 것이냐, 그 자료를 폐기할 것이냐 보존할 것이냐, 보존한다면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특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특별법으로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.

- 특검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자꾸만 특별법이나 특검이나 해서 토론프로까지 나오니까 사람 참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.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. 엉켜있으니까요.

- 특별법은 특별법이고 특검은 특검입니다. 공개는 공개이고 수사는 수사입니다. 그렇게 잡시다. 정리 좀 해 주세요. 내가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. 내가 한 10번쯤 얘기했죠? 10번을 얘기해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까 그렇습니다.

#### □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, 국회가 나서야

- 대통령한테 공개냐 비공개냐 라고 물으면 대통령은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자 그것이 맞지 않겠습니까?

- 그래서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고, 특별법이 특검에게 그 권한을 주는 방법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.

- 왜냐하면 공개와 비공개, 이후 자료의 보존과 폐기,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법이 정해줘야 됩니다.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. 그래서 국회 아십니까? 정당끼리 정치적 공방만 주고받지 말고 문제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풀어야 합니다.

#### 4. 불법도청은 군사정권부터 이어져온 역사적·구조적 범죄행위

##### □ 국가기관에 의한 조직적인 인권침해,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

- 정·경·언 유착이라는 것과 도청문제 어느 것이 본질이나 이런 문제제가 꼭 중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.

- 그러나 굳이 제게 물으면 도청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

- 도청은 정경유착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또 그것이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문제야말로 정말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이 없도록 조치해야 됩니다.

- 국가권력에 의한 그것도 조직적인,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습니다.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무겁게 봅니다.

- 물론 정경유착도 무거운 일입니다. 그러나 그것은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행위 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.

□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저질러진 불법 도청한번도 파헤쳐진 적 없어

- 또한, 정경유착은 5공 청문회 때부터 그 진상이 그동안 계속해서 밝혀져 왔습니다. 그래서 그 전모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밝혀지고 정리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.

- 그렇다고 해서 남은 문제를 내가 다 덮어버리자고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. 다만 이미 진상이 알려져 있고 구조적인 것이 다 밝혀져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이라는 겁니다.

- 반면에 도청은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한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습니다.

- 그야말로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, 공화당 때부터 벌어졌던 소위 국가정보조직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서 한번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가 파헤쳐진 일이 없습니다.

□ 역사적 뿌리에 책임있는 사람들 깨끗하다고 할 수 있나?

- 지금 마무리되는 시점에 부스러기 꺼내놓고 그 과거를 지금 추론하려고 하고 있는데, 이 과거의 원뿌리를 만든 사람들이 지금 이파리 몇 개 보고 흥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

- 도청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 아닙니까? 구조적인 뿌리가 있고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지금 깨끗한 척하고 참여정부 조사하자고 하는데, 그들은 옛날에 다 이것을 물어뜯만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- 그런데 참여정부는 그것을 물어볼 힘이 없습니다. 옛날에는 다 폭력적인 권력 가지고 다 입도 못 열게 하고 시효 다 넘기고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은 아닌 척하고, 이래서는 안 됩니다.

#### □ 불법도청 문제는 역사의 문제이고, 현재의 문제

- 도청문제야말로 소위 권력의 불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.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? 모두들, 나도 도청당하는 것 아니냐고. 현재의 문제이고 역사의 문제입니다.

- 그러므로 나는 도청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, 이 점은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도청문제는 도청문제대로 수사해 나가고 또 그 위에 역사적 평가도 해 나가고 하자 이것입니다.

### 5. 국정원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

#### □ 지금 단계에서 국정원 개편 논의는 비약

- 국정원 개편 문제를 물었는데, 참여정부 출범이후 저도 그동안 국정원의 조직과 역할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. 또 무엇이 남아있는지 좀더 수사 끝나고 한번 보십시오. 그런 논의는 좀 앞질러 가는 것 아닐까요?

- 수사하고 도청과 관련된 조직의 전모가 드러난 후 그것과 더불어서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된다면 그때 조직을 점검해 볼 수 있겠지요.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거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비약 아닙니까?